

# 성와 이인재의 유교개혁사상

김 종 석\*

## ■ 차례 ■

1. 서론
2. 이인재의 생애
3. 사상 형성의 두 가지 길
4. 유교개혁사상
5. 결론

### 【국문초록】

성와 이인재는 경북 고령 출신으로 한말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유교개혁론자이다. 그는 지금까지 단지 『희랍철학고변』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이 기념비적 저술의 이면에는 유교개혁에 대한 그의 의지가 깔려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독실한 성리학자이다. 본 논문의 집필은 독실한 성리학자인 이인재가 희랍철학을 깊이 연구하여 체계적인 저술을 남겼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가운데 중요하게 다룬 문제는 이인재의 성리학 사상과 그의 희랍철학 연구라고 하는 피상적으로 보면 이질적인 두 측면을 어떻게 연결시켜 설명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요컨대 이인재는 희랍철학 연구를 통해서 성리학의 진리성을 재확인했으며, 동시에 성리학 특히 한주학의 연구를 통해서 서양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도출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 당시 보수유림 사회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면우 광종석의 제자로서 한주학과가 수행한 다양한 사상적 실험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논리와 방법론으로 유교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 주제어

성와, 이인재, 유교개혁론, 희랍철학고변, 한주학파, 이진상, 곽종석, 강유위, 장지연

## 1. 서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북아시아의 유교문화권 국가에서 전개되었던 유교개혁론이 오늘날 다시 학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유교개혁론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유교적 전통문화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의식과 통하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날의 상황은 당시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고 따라서 문제의 성격도 다르지만, 유교문화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는 당시의 혁신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유교문화의 발전적 계승 방법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유교개혁을 주장하는 혁신유림들이 등장했는데,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성주, 고령, 산청, 거창 등 중남부를 중심으로 한주이진상으로부터 형성된 한주학파는 다양한 형태의 유교개혁론을 제시하였다. 한주학파는 기본적으로 퇴계학맥을 계승하면서도 지리적으로 남명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주의 후학들은 왕성한 시무의식을 특징으로 하면서 역사적으로 그 유래가 드문 다양한 사상적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가운데 고령 출신의 성와 이인재는 한주학파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한편으로 유교를 근대에 맞게 개혁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그는 유학자로는 국내에서 희랍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저술을 남긴 최초의 학자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미 그의 신학문에 대한 연구와 서구문화 수용론에 관해서는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

로 이인재의 생애와 사상 형성 과정,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유교개혁론을 검토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 2. 이인재의 생애

李寅梓(1870~1929)는 고령의 사족 가문인 星山이씨 가문에서 아버지 鍾發과 어머니 碧珍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호는 省窩, 자는 汝材였다. 그의 집안은 본래 태조 왕건을 도와 삼한을 통일한 能一이 성산을 식읍으로 받음으로써 시조가 되었으며, 조선조에 들어와서 헌납 벼슬을 지낸 士澄(호 松塢)이 처음으로 고령의 館洞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후로 6대를 내려와서 유일로서 지평 벼슬에 제수된 東禮(호 謹齋)는 見龍(호 竹圃), 文龍(호 菊圃), 澤龍(호 梅圃) 삼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한강 정구의 문하에 입문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니 세상에서는 그들을 이씨가문의 三圃선생이라 칭했다.

이인재는 그 가운데 국포 문룡의 후대이므로 굳이 가학의 연원으로 따지자면 한강의 학문적 영향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한주학파의 학문적 종지를 확고하게 계승하였으므로 가학 연원을 근거로 한강학맥과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지만, 성주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과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서 배태된 것이 한강학과 한주학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공통점도 없지는 않다. 그 공통점이란 다름 아닌 왕성한 시무의식과 퇴계와 남명의 어느 쪽에도 전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학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인재는 어린 시절 재종질 되는 弘窩 李斗勳에게 학문을 배웠다. 이두훈은 그에게 조카뻘이었지만 나이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당시 집안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스스로가 “공은 나에게

친척으로 따지면 재종질이지만 학문으로 따지면 사표가 된다.”<sup>1)</sup>고 한 바 있다. 그는 후에 한주 이진상의 대표적인 제자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洲門八賢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다.

이인재는 이두훈을 통해 학문의 기초를 닦았으며 퇴계와 한주를 잇는 주리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이두훈은 이인재에게 한주학맥을 전수하면서도 위정척사적 시각에 머물지 않고 신사상과 신문화에 대한 탐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정도로 혁신적인 유학자였다. 고령 출신의 혁신적 지식인 가운데는 이인재 외에도 이두훈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sup>2)</sup> 애국지사로 유명한 南亨祐 같은 인물도 이두훈의 문하에서 배웠던 사람이다. 그런 만큼 이두훈은 이인재가 어릴 적부터 개방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인재가 걸어간 초기의 학문적 여정은 전통적인 유학자의 모습이었다. 그가 20세가 되던 1889년(고종 26)에 郭鍾錫이 고령의 盤龍寺로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이인재는 백씨 寅杓와 함께 곽중석을 배알하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인재는 곽중석의 문하에 입문한 이후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894년 갑오년에는 농민혁명을 비롯하여 조선말기의 갖가지 변혁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이 무렵 이인재는 번잡한 세상을 피하여 乃谷으로 거처를 옮기고 성리학에 정진하였다.

이인재는 곽중석을 통해 한주학파의 성리학적 입장을 계승했으며, 성리학 뿐만 아니라 예학과 역학에 있어서 스승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남겼고, 특히 역학에 있어서는 스승의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sup>3)</sup> 그는 여전히 유학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았으며, 당시 범람하던 신사조의 유입에 대해 우려하고 위

1) 公之於梓，以親則總宗也，以學則師表也(『省窩集』，卷五，「祭再從姪弘窩公文」).

2) 『고령문화사대계1(역사편)』，2008，제6장 「근현대의 고령」(권영배) 참조.

3) 杜門十年，積學潛究，所造詣者，漸高而於易，頗有見到處，乃筭錄，質于師門，大率多頷可焉。(卷六，「行狀」)

기지학에 힘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sup>4)</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사늑약(1905)과 경술국치(1910)를 거치면서, 그는 유교개혁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유학에 대한 확신을 견지하면서도 유학이 과거의 유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어릴 적 이두훈에 의한 감화와 합방을 전후한 시기의 개인적 자각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그 외 張志淵(호 韋庵)을 비롯한 혁신적 인사들의 영향이 중요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지연은 여헌 장현광의 후손으로 변법자강론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혁신유림이었다. 이인재는 이러한 장지연과 빈번한 교류를 가졌는데, 두 사람의 문집에는 1896년에 함께 가야산을 유람했을 때의 기록이 남아있다. 또 이인재와 마찬가지로 이두훈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보성학교를 유학한 후 서울에서 대한협회 일을 보고 있던 남형우, 당시 영남지방에서 신사조 보급의 중심지였던 대구의 友弦書樓에 머물고 있던 金光鎭과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신사상과 신서적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의 학문적 관심은 전통 유학 즉 舊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근대학문 즉 新學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서구 열강이 부강해진 데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경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치제도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서양의 헌법·행정에 관한 책을 읽었으나, 헌법이나 행정도 그 민족의 고유한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양철학 연구에 착수하였다. 서양철학 중에서도 성리학과 유사한 체계를 갖

4) 斯世滔滔，競趨他岐，鮮有以古人之學從事者矣。雖或從事焉，而纔依樣畫蘆，略解文理，則便自以爲足，更不欲尋向上去，此今日之通患。…惟硬着脊梁，牢着脚跟，益讀古人書，益求爲己學，則自家腔子裏，便有一副乾淨之地矣。(卷二，「答鄭允守」)

준 고대 희랍철학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당시 일본과 중국을 통해 들어온 희랍철학 개론서를 읽고 성리학적 관점에서 비평을 하는 식으로 이해해 나갔다. 이러한 연구결과로서 나온 것이 당시 서양철학 연구서 가운데 가장 체계성을 갖춘 업적으로 평가받는 『古代希臘哲學攷辨』이었다.<sup>5)</sup> 또 현존하지는 않지만 서양 정치제도의 장단점을 논한 『泰西新編』도 저술했다고 한다.<sup>6)</sup>

이처럼 서구문화에 대한 관심은 철학을 넘어서 정치사회 분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식견을 바탕으로 이인재는 몇 차례 사회참여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대개 민심이 임금에게 진달되는 것은 民議에 달려있고 민의가 발달하는 것은 단합에 달려있으며 단합의 견고함은 자치력의 정도에 달려있으니, 자치력은 실로 민의의 원동력<sup>7)</sup>”이라고 할 만큼 민의와 자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1907년에 民約이라는 고령군 주민 자치조직을 만들었지만 참여 인원이 적어 1909년에 자치민의회로 이름을 바꾸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협외 고령지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그 외 고령군수 朴光烈의 추천으로 일종의 명예직인 참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의 사회참여는 역사 속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경험은 그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실참여를 통해 입수한 각종 신사조와 신지식은 그의 유교개혁론의 밑거름이 되었다.

동시에 유학 자체에 대한 공부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지역의 뜻있는 유림들과 함께 고령향교를 기반으로 慕聖契를 조직하여 유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으며, 盤城에 사는 선비 李光淵 등과 함께 강학계를

5) 且謂泰西學術，亦有可觀，不可一切棄之。就其中，博采廣搜，究其歸趣，訂其是非，著爲一卷，書名之曰，哲學攷辨。（卷六，「家狀」）

6) 至於泰西文字，亦旁搜覽，訂其政治之理亂，爲泰西新編。（卷六，「墓碣銘」）

7) 蓋民情之上達在民議，民議之發達在團協，團協之堅確在自治力之程度，自治力實民議之原動力也。（卷五，「自治民議會趣旨書」）

조직하기도 했다. 경술국치 후에는 향리의 만하동에 霞山精舍를 짓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학문연구에 몰두했는데, 그가 생전에 가장 가까이 교유한 인물은 金聲夏, 南廷燮, 南廷瑀, 曹兢燮 등이었다. 만년에는 만하동 역시 조용하지 않다 하여 합천의 簑村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시도하였으나 집이 완성되기 전 1929년에 60세의 나이로 죽었다.

### 3. 사상 형성의 두 가지 길

#### 1) 한주학맥의 계승

이인재는 어려서는 이두훈에게 배웠고 성장해서는 곽종석에게 배웠는데, 이두훈과 곽종석은 한주문하의 대표적인 직전제자로서 이들의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이인재로 하여금 한주학맥을 계승하게 했다.

고령과 이웃한 성주 출신의 寒洲 李震相(1818~1886)은 본래 숙부 李源 祚로부터 가학을 계승하면서 안동의 柳致明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이원조 또한 정종로·류범휴·류치명 등 주로 대산 문하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가운데 특히 정종로의 학맥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어도 학맥으로 따지면 한주학맥은 결국 대산학맥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주학과는 지리적으로 경상좌도와 우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 퇴계와 남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독특한 학풍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이진상은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계승하되 '心卽理'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성주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학풍을 일으켰다.

이진상이 제창한 심즉리의 주장은 퇴계의 심설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인데, 당시 퇴계학의 적전으로 자부하던 안동과 상주의 유림들로부터도 성토를 당할 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진상의 심즉리의 주장이 과

연 퇴계의 심설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주장은 객중석을 거쳐 이인재에 이르기까지 한주학과 전체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더 중요한 점은 심즉리설이 단순히 성리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한주학과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던 특유한 학풍, 즉 현실에 있어서의 개혁성 내지 개방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sup>8)</sup>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주학과의 학문경향은 시폐에 민감하고 시무론적 의식이 강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진상은 1866년(고종 3)에 시폐를 진술하고 대안을 제시한 『畝忠錄』이라는 글을 써서 임금에게 올린 적이 있는데, 이 글은 '과거의 제도를 참작하여 현재의 급무에 통달한다(酌古制·通時務)'의 관점에서 각종 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을 임금에게 올리면서 그는 "크게 경장하고 크게 쇄신할 때 비로소 세상의 운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sup>9)</sup>라고 한 바 있다. 이 말은 그의 민감한 시무의식과 변통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한주학과의 하나의 학풍이 되었다. 이진상이 제시한 '작고제·통시무'의 개혁안은 후일 이인재의 저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과거의 법도를 회복하고 새로운 법을 채택한다(復舊道·採新法)'는 변통론으로 이어졌다.

객중석은 스승 이진상의 심즉리설을 적극적으로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안동 등 다른 지역 학자들의 비판에 맞서 이른바 '심설논쟁'을 주도했다. 이진상에 대한 그의 평가는 "한주 이선생이 출현하여 맹자와 정자가 남긴 단서를 거슬러 올라가고, 주자와 퇴계의 올바른 전통을 고찰하여 심즉리의 설을 저술함으로써 양명의 잘못된 견해를 변별하고 세간 학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논파했으니, 그 공을 논하자면 거의 오늘날의 정자라고 할 수 있다."<sup>10)</sup>라고 할

8) 김중석,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과 지역별 특징」, 『국학연구』 제4집(한국국학진흥원, 2004. 6), 53~66쪽 참조.

9) 小康不足恃, 而積弊猶未祛, 必須大更張大振刷, 始可以挽世運, 而措泰磐矣. (『畝忠錄』「擬陳時弊仍進畝忠錄疏」)



정도였다. 곽종석은 심즉리설이 영남과 기호지역의 유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자 이에 반박하는 수많은 글을 지어 심즉리설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곽종석이 이진상의 학문정신을 계승한 또 다른 측면은 적극적인 시무의식이었다. 그는 당시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던 신문물을 외면하지 않고, 관련 저술들을 섭렵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겼다. 바로 「書公法會通後」(1899), 「書曹仲謹困言後」(1912), 「書哲學攷辨後」(1912)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곽종석은 당시 신문물에 관한 논의를 파악하고 있었고 국내에 들어와 있던 신서적을 읽었을 뿐 아니라 영남지역의 학자들이 쓴 관련 글에 대해서 그 발문을 쓸 만큼 본인 스스로가 신학문에 일정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문하에는 이인재와 같이 신학문에 관심을 가진 문인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다.

이인재는 이두훈을 추념하면서 “主理의 중지를 지키면서 격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sup>11)</sup>고 했고, 곽종석의 학문을 평가하여 “남긴 저술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선생의 학문은 主敬과 主理의 중지였다.”<sup>12)</sup>고 했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그가 유년기와 장년기에 이두훈과 곽종석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주자와 퇴계를 계승하는 주리의 학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스승 곽종석과 마찬가지로 한주의 심즉리설을 진리의 기준으로 확신하였으며, 한주설은 그의 모든 학문적 주장에 있어서 근거가 되었다.<sup>13)</sup> 그의 「主宰說」, 「心本體說」, 「虛靈知覺說」, 「太極動靜說考證」 등에서 확인되는 철저한 주리적 경향은 한주설의 영향이며, 특히 「심본체설」에서는 퇴계의 「心

10) 寒洲李先生出而溯孟程之遺緒，考朱退之正傳，著心即理之說而辨陽明之謬見，破世儒之胡叫，以功論之，殆亦今世之程子也。（『俛字集』，卷百二十八，「心性雜記」）  
 11) 扶主理之宗旨，砥柱乎激浪之中，而未嘗少摧。（卷五，「祭再從姪弘窩公文」）  
 12) 惟先生之道之載在遺編者，奉讀而尋繹之，則先生全體大用之學，主敬主理之旨，依然如明詔而面命矣。（上同，「再祭俛字先生文」）  
 13) 近看洲集，略見主理之爲的訣，而本體妙用，微奧難究，意欲從事於存養省察，以爲依據下工之地，而才短性懶，豈能收效於桑榆耶。（卷二，「答陳夏卿」）

統性情圖」를 해석함에 있어 「中圖」를 정론으로 보는 곽중석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했다. 그는 「下圖」를 정론으로 보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중도」가 마음의 본체를 가장 정확히 나타내며 그것은 곧 심즉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sup>14)</sup>

이인재는 절친하게 지내던 창녕의 曹兢變과 심즉리설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는데, 유학의 쇠퇴가 오늘날처럼 심했던 적이 없었으며 유가의 도가 절멸하는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전제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자와 퇴계의 종지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했다.<sup>15)</sup> 그는 조공섭마저 하늘은 리가 주재하지만 마음은 기가 주재한다고 하는 견해에 찬동하는 입장을 취하자, “그렇게 되면 大本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이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반대하고 한주의 심즉리설을 견지했다.<sup>16)</sup>

그가 심의 본질을 기로 보는 견해에 대해 끝까지 반대했던 것은, 마음을 단순히 지각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지각을 주재하는 본체로 인식했기 때문인데, 이점은 바로 그가 한주학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승했음을 말해준다. 그는 “지금 기가 심을 주재한다고 하는 것은 곧 수은이 바로 거울의 본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말인가.”라고 반박했다.<sup>17)</sup> 그는 기가 발휘하는 모든 작용성은 근원적으로 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리를 만사만물의 원인자인 동시에 주재자로 간주하여 리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는 리를 만물의 원인자로 본 결과, 서양문화 마저도 하나의 分殊理로

14) 將此等數說，着眼細看，則先生主理之旨，可以凍解氷釋，而後之學者，專以下圖雙關說，把作先生定論，而中圖之旨，無或考驗，殊可訝也。（卷三，「心本體說」）

15) 當相與愛惜，實心切磋以維持吾道，不至胥溺於震蕩之際，非目下之急務歟。雖或有仁智之異見，所聞之各尊，究而原之，則不過講求朱退之宗旨也。（卷二，「與曹仲謹(兢變)」）

16) 但其言天則理爲主宰，言心則氣爲主宰，大本有二，故竊以爲不能無疑也。（卷二，「與曹仲謹」）

17) 今以氣爲心之主宰，則亦以水銀爲鑑之本處，可乎。（卷二，「與曹仲謹」）

인식하게 되었다. 그가 “하늘이 인재를 내린 것이 반드시 중화만이 아닐진대 어찌 서양이라고 해서 배척하리오.”<sup>18)</sup>라고 한 말의 배경에는 이러한 뜻이 있었다. 동시에 그는 유교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서양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허습과 진부함을 버리지 못하는 보수유림이라고 하여 유학계의 일대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인재는 유학의 진리성에 대한 신뢰는 평생 동안 변함이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신이 그가 서양의 신학문을 공부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갔다는 점이다. 그것은 서양철학의 핵심 사상이 주자학 및 퇴계학과 서로 통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학문을 습득하면서 유학에 대한 확신이 약화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신학문에 관해 알수록 더욱 유학의 진리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 2) 근대 신학문 연구

한주학파의 왕성한 시무의식은 후학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상적 실험을 가능케 하여, 어떤 이는 국권회복을 위한 사회운동에 투신하였고 또 어떤 이는 공자교라고 하는 유교종교화운동에 뛰어들었으며 또 다른 이는 동서양의 학문을 폭넓게 연구하여 유교를 근대적으로 개혁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국권회복과 부국강병의 달성이었다.

이인재는 그 가운데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이두훈은 이인재에게 주리의 종지를 가르쳐서 그를 한주학맥으로 인도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통학문에 한정되지 않고 신학문을 학습하도록 격려해 준 사람이기도 했다. 이두훈의 문집에는 직접 이인재에게 보낸 편지나 관련된 글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당시의 혁신유림들과 맺었

18) 天之降才，不必中華則，豈可以泰西而擯之乎。(卷二, 「上侁宇先生」)

던 폭넓은 교유관계나 그의 문하에서 많은 혁신유림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인재의 개혁사상 형성에 끼친 그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인재가 한말의 시기에 국내의 대표적인 서양철학 연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데는 이두훈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서양철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에 관해서 스승인 곽종석에게 아래와 같이 설명한 적이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양이 발흥한 데는 필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근원을 궁구하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치를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헌법·행정 등에 관한 서적을 대략 검토해 보니, 그 원류가 모두 철학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치를 잠시 미루어 두고 먼저 철학을 변석하게 된 것입니다.<sup>19)</sup>

그러나 이인재가 신학문을 학습한 구체적인 경로는 분명치 않다. 다만 문집에 나타나 있는 각종 글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영향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인재가 시대적 대안으로 수용한 사조는 중국 청말의 사상가 康有爲·梁啓超가 주창한 변법자강론이었다. 그는 당시의 과제는 保國·保種·保教라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책임은 서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논리와 용어는 대개 강유위가 구사하던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또 그가 자주 거론하여 강조하던 自由·民權·進化는 바로 강유위의 변법론을 바탕으로 스펜서(H. Spencer)와 헉슬리(T. H. Huxley)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변법자강론을 완성한 양계초가 강조하던 것들이다.

19) 妄念泰西之興，必有其致，欲究其根，莫如攷其政治。故略玩憲法行政等書，則其源流皆從哲學中來。因姑關政治，先辨哲學。（卷二，「上儷宇先生」）

강유위와 양계초의 논설은 다양한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국내의 혁신적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인재가 변법자강론을 수용한 데에는 대한협회와 장지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는 대한협회 고령지부를 설립했는데, 대한협회와 그 전신인 대한자강회를 창설한 사람이 바로 장지연이다.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회보에는 강유위와 양계초의 저술이 자주 실렸으며 장지연이 직접 번역한 글도 있었다.<sup>20)</sup> 이런 까닭에 장지연은 변법자강론이 국내에 들어옴에 있어 교량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21)</sup>

장지연은 張顯光(호 旅軒)의 13세손으로 상주에서 출생하여 19세 때 선산의 許薰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으로 이인재와는 학맥 상으로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배경으로 두 사람은 1896년에 가야산을 함께 유람한 적이 있으며, 이 유람에서 두 사람은 여러 수의 시와 부를 남겼다.<sup>22)</sup> 이인재가 대한협회 고령지부를 설립한 것은 이러한 인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장지연은 한때 광문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정약용의 『목민심서』·『흙흙신서』(1900) 등을 간행했고, 『강역고』를 증보하여 『대한강역고』(1902)를 간행했을 정도로 실학사상의 보급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인재는 자신의 시무론인 「九經衍義」에서 “동서양의 장점을 참작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유형원의 『반계수록』, 정약용의 『목민심서』·『경세유표』, 그리고 이진상의 『묘총록』을 참고하여 시행할 것”<sup>23)</sup>을 제의한 바 있다.

20) 전동현, 「대한제국시기 중국 양계초를 통한 근대적 민권개념의 수용」, 『중국근현대사연구』 제21권(중국근현대사학회, 2004), 〈부록〉 참조.

21) 申一澈, 「申采浩의 自強論」, 『韓國思想叢書』 III(서울: 경인문화사, 1973), pp.53~54.

22) 두 사람이 함께 유람하면서 지은 글로서, 장지연의 『韋庵文稿』(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56)에는 「伽倻山賦」와 18수의 詩가 남아 있으며, 이인재의 『省窩集』에는 「和贈張進士舜韶(志淵)」, 「與張舜韶遊伽倻山」가 있다.

23) 必須先拔知時識務之士, 本諸先王子民之意, 參之泰西民權之法, 定爲一王之新法, 更取柳磻溪馨遠隨錄, 丁茶山若鏞牧民心書經世遺表, 李寒洲震相畝忠錄, 斟酌損益. (卷五, 「九

이상의 단서들로 미루어 이인재가 변법자강론을 수용함에 있어서 장지연과 대한협회의 영향이 컸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강유위·양계초의 저술을 통해 서양문화 및 신학문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입수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이인재의 문집에 등장하는 서양문화에 관한 서술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강유위·양계초의 저술에서 언급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외에도 이인재의 저술을 검토해 보면, 그가 신학문을 습득하는 경로로 활용한 몇몇 인물들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당시 신서적을 소장하고 신사상을 보급하던 인사들이 모이던 장소였던 대구의 友弦書樓에서 신사상을 보급하고 있던 金光鎭<sup>24)</sup>이나 서울에서 대한협회 일을 보고 있던 南亨祐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다. 김광진은 후에 신간회 대구지부장을 지냈던 인물로서 계몽운동의 측면에서 이인재와는 협력적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남형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두훈에게 배웠으며 그의 권유로 보성학교로 유학하여 신학문을 했던 애국지사이다.

이인재는 남형우에게 당시 보성학교에서 간행하고 있던 법률, 정치 교과서를 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sup>25)</sup> 김광진에게는 우현서루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sup>26)</sup> 당시의 우현서루에는 상당한 분량의 신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는 이렇게 수집한 서적을 바탕으로 근대 신학문을 연구했으며, 그 내용을 한주학과의 성리학적

經衍義)

24) 김광진(1885~1940)은 淸道 孔岩學校와 大邱 明新學校 教師, 月背學校 校長을 지냈다. 후에 한의학을 공부하여 한의사가 되었고 신간회 대구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金光鎭, 『海岳文集』, 卷二十, 「碑文」)

25) 兄教中, 普成學校, 方廣刊法律政治諸教科書, 另立校外購覽之規, 則窮鄉僻谷, 凡有志於博考者, 皆可購覽, 而時世之變, 經濟之道, 可以不出戶, 而知之矣. (卷二, 「答南聖敏」)

26) 聞樓上藏書數千卷, 雖未得一玩題目, 而此友弦之義, 已足以使人起欽, 歷數往古功名事業之眩耀人耳目者, 何限而獨取. (卷二, 「答金光鎭」)

입장에서 해석했다. 그 결과 그가 도출한 최대의 결과물이 바로 『고대희랍철학고변』이다. 그는 서양철학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희랍철학에서 주자학과 유사한 자연법적 속성을 발견하고 유학과 서양철학의 본질은 서로 통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희랍철학자 가운데 특히 '형상'과 '질료'의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더욱 친근감을 표시했다.<sup>27)</sup> 형상과 질료의 관계가 주자학의 리와 기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희랍철학처럼 독립된 저술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인재에게 큰 영향을 끼친 신사조는 사회진화론이었다. 사회진화론은 그의 저술 전반에 걸쳐 그 바탕에 깔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진화론에 경도하게 된 일차적 계기는 물론 당시의 대부분의 혁신적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강론의 영향이었지만, 그가 사회진화론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 속에서 자연법적 진리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생물학의 원리에서 출발한 사회진화론은, 우주자연의 원리에서 인간사회의 원리를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희랍철학과도 통하고 주자학과도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인재는 희랍철학과 진화론을 주자학적 시각에서 연결시켜 보았으며, 그것으로써 서양철학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의 사고 속에는 전통 유학과 희랍철학 그리고 사회진화론이 심층적 차원에서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던 구한말의 국제질서를 '優勝劣敗의 장'으로 규정하고 대한제국이 처한 시대상황을 '剝陽未盡의 시국'으로 간주했다. 그가 왜 희랍철학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적 편력을 거치면서 유학이 스스로 개혁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의 유교개혁의 방향은 유교의 본래정신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보수적 제요소를 철폐하는 것이었다.

27) 惟哲學與吾道相近，就中亞氏學說，尤多相合處。(卷二，「上俛宇先生」)

#### 4. 유교개혁사상

이인재의 사상 형성 과정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주학파의 종지를 계승 발전시키는 길과 근대 신학문을 습득하는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이루어졌다. 그에 있어서 유교의 본래정신과 서양문화의 본질은 별개의 두 가지 영역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서로 소통되는 관계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한말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하늘에는 춘하추동이 있어 쌓이면 일 년이 되고, 땅에는 동서남북이 있어 합하면 사방이 된다. 추우면 갓옷을 입고 더우면 갈옷을 입는 것은 하늘에 순응하는 법칙이요, 물에서는 배를 타고 땅에서는 수레를 타는 것은 땅에 사는 마땅함이다. 이에 반하는 사람은 이치에 있어서 순조롭지 못한 것이 되고 덕에 있어서 상서롭지 못한 것이 되어 행할 수 없기로는 마찬가지이다. 그런즉, 과거와 현재는 우주변화에 있어서 겨울과 여름이 아니겠는가, 아세아와 구라파는 세상에 있어서 물과 땅이 아니겠는가.<sup>28)</sup>

이인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아서 길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을 이면에서 조종하는 우주의 원리는 한 가지라는 것이다. 또 아세아와 구라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이 다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인간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과 땅의 관계와 같아서 근본적인 자연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도처에서 피력하고 있다. “동일한 것은 본성이고 동일하지 않은 것은 고금의 변화와 국경의 한계”<sup>29)</sup>라는 등 그는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원리는

28) 天有春夏秋冬，積之爲一歲，地有東西南北，總之爲四方。寒則裘而暄則葛，用天之經也，水行舟而陸行車，因地之宜也。反是者，於理爲不順，於德爲不祥，其不可行均矣。然則古今者，非大化之寒暑乎，亞歐者，非世宙之水陸乎。（卷三，「漫錄」）

29) 然所同者，性也，所不同者，古今之變邦域之限也。（卷五，「九經衍義」）



한 가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국권피탈의 위기에 처하게 된 데는 變通의 원리를 자각하지 못한 유림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 조선 유학계의 문제점에 대해, “근자에 와서 배우는 사람들이 조금만 詞章에 통하면 곧바로 理氣를 논하니, 이기에 관해 물리도록 얘기를 한들 이것은 옛 사람들이 하던 대로 따라 하는 것이지 진실로 안 것이 아니다. 하물며 分殊에서부터 들어가지 아니하고 억지로 一本에 관해 파고드니, 또한 어찌 말에 차질이 없을 수 있겠는가.”<sup>30)</sup>라고 하여, ‘依樣畫胡’ 혹은 ‘強探一本’을 지적했다. 즉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절실한 반성 없이 옛 사람들이 해 오던 대로 따라 간다는 것과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근본 문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의 저술에는 一本과 分殊의 논리를 가지고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의 중요성을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군주를 일본이라고 하고 만민을 분수에 비유하기도 했다.<sup>31)</sup> 중요한 점은 일본과 분수를 연결시켜 보는 성리학적 입장을 취하되, 과거처럼 일본에서 분수를 연역해 내는 방식이 아니고 분수에서 일본을 귀납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그가 성리학의 신념을 견지하면서 서구문화 수용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서구문화도 하나의 분수로서 일본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시대에 맞는 ‘切問近思’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그의 유교개혁론이 되는 것이다.

이인재는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위기 상황을 保國, 保種, 保教의 위기로 규정했다. 주지하듯이 보국, 보종, 보교를 처음 말한 사람은 중국의 사상가 강유위였다. 그러나 강유위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교를

30) 挽近以來, 學者稍通詞章, 則便徑談理氣, 直饒說得理氣十分, 是當猶依樣畫胡, 不是眞見. 況不自分殊入, 而強探一本, 亦豈能說得無差乎. (卷二, 『與曹仲謹』)

31) 夫理一分殊, 本相涵矣. 元首者一本也, 萬民者分殊也. 上下相交, 卽一本涵分殊也, 上下隔塞, 卽分殊離一本也. (卷二, 『上侖宇先生』)

종교화하여 서양의 기독교문화에 대응하자는 방식 즉 공자교운동을 제시한 데 비해, 이인재는 좀 더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즉 동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본질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서양의 발달된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생각이었다. 이점에서 그는 같은 한주학파에 속하지만 강유위의 주장을 수용하여 공자교 방향으로 나아간 李承熙(1847~1916)나 李炳憲(1870~1940)과도 그 노선을 달리했다.<sup>32)</sup>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시대인식에서 강유위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면서 가장 중요한 종교화론에서 완전히 견해를 달리 했다는 점은, 이인재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가 희랍철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음의 언급에서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까닭에 서양에서는 교회를 철저히 억제한 이후에 공법이 시행되고 민권이 신장되었으며, 동양에서는 척사의 주장이 나오면서 곧 그것은 유교를 더럽히는 자료가 되었고 존왕양이의 습관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화를 재촉하는 명목이 되었다.<sup>33)</sup>

이 말에는 종교에 대한 그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즉 서양에서는 종교의 권한이 축소된 근대 이후에 공법이 시행되고 민권이 신장되었고, 반대로 동양에서는 위정척사와 같은 비이성적 종교적 주장이 위세를 떨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교의 화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수유림들의 화이론적 태도를 종교적이라고 간주하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유학계의 모습이 유교의 본래 정신에 부합하는지를 반성하고 당시의 유교문화를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그의 유교개혁론의

32) 김종석, 「한주학과 유교종교화론의 본질과 공자교운동」, 『철학논총』 제46권(새한철학회, 2006. 10) 참조.

33) 是以, 泰西則刪除教會苛烈而後, 公法行而民權伸, 東洲則斥邪之論行而適所以爲饑教之資, 攘夷之習勝以反藉以爲速禍之目. (卷三, 「漫錄」)

출발점인 것이다.

이 점에서 천하의 일에는 참으로 알지 못할 것이 있다. 천하에 크게 공정하고 지극히 중용에 부합하는 도를 가지고도 있으면서 끝내 온갖 종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다니.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게 반성하여 구할 뿐이다. 전일에 (서양을) 배척하고 물리친 것이, 과연 하늘의 지극히 공정한 진리와 성인의 사물을 이루는 어진 마음에 부합하는가.<sup>34)</sup>

그의 유학에 대한 신뢰는 확고했지만 종교적인 맹신의 태도에서 벗어나 철학적 관점에서 동서양 종교의 공통적 가치와 이에 바탕을 둔 화해를 추구했다. 따라서 그가 비판한 것은 구학이나 신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학자들의 자세였다.

그는 “대저 학문은 그 門戶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主義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신학이니 구학이니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주의가 확고하면 높은 관을 쓰고 넓은 띠를 매더라도 신학을 하는 데 지장될 것이 없으며, 주의가 없으면 전모로 지은 양복을 입더라도 또한 진부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sup>35)</sup> 하여, 신학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고 확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시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세상에는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은 피상적인 것을 꾸미는 데 힘쓰고 구학을 지키는 사람은 그저 진부한 것에 집착함으로 인하여, 어느 쪽도 학계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sup>36)</sup>고 하여, 신학과 구학을 주장하는 양측을 모

34) 於是乎，天下之事大有不可知者矣。以天下大正至中之道而終不能自保於百教融行之世歟。思之至深，不過反求諸己而已。前日之所以斥之攘之者，果合於上天至公之眞理，至聖成物之仁心乎。(卷三，「漫錄」)

35) 大抵學不患多門戶，而患其無主義，……曰新曰舊，不可執迹而說畛，惟其主義確是，則峨冠博帶，不害爲自新，如無主義，則氈帽洋服，亦不免陳腐矣。(卷二，「答金光鎮」)

36) 斯世趨新者，徒務飾皮相，守舊者，只膠守陳腐，茫無發憤振作放一光彩於學界上矣。(上同)

두 비판했지만 특히 구학 측 유학계에 대한 비판이 깊고 통렬했다. 다만 그는 유학의 유신을 위해서는 유학계 자체 내부의 각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이 그가 회랍철학을 연구한 이유였던 셈이다.

따라서 이인제는 유교개혁을 유교라는 범주 안에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구학과 신학을 포괄하는 신사상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에 근거하여 과거에서 배우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천박하여 본원에 이르지 못하고, 과거에서 취하면서 현재를 참작하지 않으면 오황하여 물정에 어둡게 된다.”<sup>37)</sup>고 하여, 유학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생각을 종합하면 결국 덜고 더하는 작업 즉 損益이 된다. 그는 “그런 까닭에 시대에 맞게 덜고 더하는 것은 삼대에도 면치 못하는 바였으며 덜고 더함으로써 스스로 혁신이 된다.”<sup>38)</sup>고 했다. 그의 글 속에서 거듭 강조하여 말한 용어는 손익, 변통, 유신 등이었는데, 서로 통하는 말이었다.

그가 보기에 유학계의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개혁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론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그는 “근고 이래로 선생과 장로들이 학문은 비록 고명하지만 단지 理氣만을 강론할 뿐 治平의 도리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道는 비록 옛날이나 지금이 변함이 없지만 제도는 시대에 따른 손익이 없을 수 없다.”<sup>39)</sup>고 하여 隨時變易을 강조했다. 그는 유신은 유교적 전통에서 보더라도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가령 맹자가 등문공에게 말한 “그대의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는 말이나 탕왕의 경구로 알려진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면 나날이 새로워지고…….” 등이

37) 據今而不師古則膚淺而不達本源, 酌古而不參今則迂遠而不合事情. (卷五, 「學校警告文」)

38) 故因時損益, 三代之所不免, 而損之益之, 乃所以自新矣. (卷五, 「學校警告文」)

39) 近古以來, 先生長者, 學雖高明, 只講理氣, 而於治平之道, 鮮有討論也. ……道雖亘古今無變, 而制度, 則不能無隨時損益. (卷二, 「上侁宇先生」)

모두 유신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고, 만약 스스로 유신을 하지 않으면 외세의 간섭이 날로 더하여서 장차 새로운 조류에 휩쓸려 들어 가버릴 것이라고 했다.<sup>40)</sup>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은 동서양 문화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이념적 요소를 찾아내어 이것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헌법이 근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 까닭은 그것이 人心의 同然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인데, 인심의 동연함은 곧 天理의 공공성을 의미한다고 하여 근대법의 정신이 유학의 본래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sup>41)</sup>

이러한 생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옛 도리를 회복하고 새로운 법을 채택함'(復舊道·採新法) 혹은 '옛 제도를 참작하고 시무에 통달함'(酌古制·通時務) 등이다. 한 마디로 '酌古通今'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유교개혁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김광진에게 강조했던 '주의의 유무'에서 주의란 다름 아닌 '작고통금'의 원리였던 것이다. 이 작고통금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그는 각종 현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결국 성와의 유교개혁사상의 현실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1909년에 고령지역에 창설한 자치민회의의 강령은 6개조였는데, ① 지방공익 실현, ② 행정방법 건의, ③ 인민폐단 교정, ④ 교육보급, ⑤ 권리 보호, ⑥ 환난상구가 그것이었다.<sup>42)</sup> 그 내용을 보면 과거 향약의 정신 위에 근대에 맞게 새롭게 요구되는 항목을 추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경세를 농사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했는데, 헌법을 정하는 것은 밭독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사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밭독을 쌓는 일이며 밭독을 올바르게 쌓으면 나머지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논

40) 如其不然, 則外人之干涉日益緊逼, 必將流變於新潮矣. (卷五, 「學校警告文」)

41) 大抵, 憲者出於人心之所同然, 人心之所同然, 卽 天理之公也. (卷二, 「上侁宇先生」)

42) 其規則綱領, 卽地方公益之導達, 行政方法之建議, 人民弊瘼之矯救, 教育之普及, 權利之保護, 患難之相救, 六條也. (卷二, 「答南聖敏(亨祐)」)

리를 유학 이론을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유학에 대한 재해석이며 그가 생각하는 유교개혁론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생각한 유교개혁은 유학 이론 자체의 개혁이라기보다는 당시 유학계가 안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개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탁상공론에 몰두하고 있던 유학계에 대한 공격이며 동시에 무력감에 빠져있던 유학계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유교개혁을 통해서 유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사상이 아니라 근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사상을 입증하고자 했다.

## 5. 결론

이인재는 한편으로 홍와 이두훈과 면우 곽종석을 통해서 한주학맥을 계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암 장지연 등과의 교류를 통해 청말의 대사상가 강유위와 양계초의 사상에 접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강유위·양계초 양인의 저술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알게 되었고 특히 그 가운데 고대 희랍철학 연구에서는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그의 특이한 점은, 한주문하에서 배출된 여러 다른 혁신유학자들과 달리 유학의 논리를 발전시켜 서양문화의 유입에 대항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유교개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발전적 요소를 찾아내어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유학계의 폐습을 개혁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는 서양근대사와 희랍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을 이해했고, 유교개혁의 방향이 종교화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반대하고 철저히 근본원리에 대한 철학적 접근에서 해답을 모색했다.

이인재는 동서양의 문화에서 보편적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심의 동연

함에 그 원인이 있고 인심의 동연함은 곧 천리에 근거한다고 하여, 서양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본적 시각은 철저히 성리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서양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유학에 대한 그의 신념은 더욱 강화되어갔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여전히 화이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보수유림의 폐쇄적인 자세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의 유교개혁론은 구체적인 유교 이론이나 조목을 거론하기 보다는 개혁의 기본원칙이 되는 방향과 시각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이인재의 생각은 우선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는 유교적 민본주의를 서구의 대의제도와 동일시했으며 개인적인 심성수양을 일종의 정치적 자치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최선의 개혁론은 옛 제도를 회복하고 새로운 법도를 채용한다는 의미의 '復舊道·採新法'일 뿐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 유교정신의 본질을 왜곡하여 그것을 근거로 서양문화 수용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진화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이다. 동서양 문화의 근본 원리는 다르지 않다는 이인재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진화론이 과학적이면서도 주자학적 원리와도 통하고 무엇보다 당시의 국제질서를 가장 잘 해명해 주는 이론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국주의적 국제질서의 피해자였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열강의 침략을 우승열패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정당화시키는 이론이 될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 그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이인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변법자강론의 입장에 섰던 대부분의 혁신적 지식인에게 모두 해당되는 문제점이다.

이인재의 사상적 실험이 당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문제제기의 방식이 성리학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비판의 대상이 보수유림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남들은 엄두도 못 내던 회랍철학 분야에서 저술을 남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지녔지만, 문제의식이 너무 학문적이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구학과 신학 양측으로부터 공격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에 약점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재는 동서양을 포괄하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선각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서양문화를 단순히 오랑캐의 문화로 간주하고 이에 종교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당시 한주문화의 대부분의 혁신적 유학자들과 차별적 시각을 유지했던 점도 의의가 있고, 서양의 정신사에서 종교가 초래한 장단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회랍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세계문화의 보편성과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사이에 두고 이른바 동서문화 논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梁漱溟 같은 이도 중국사회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류사회 발전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부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인재가 비록 서양의 정치제도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교를 근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 그의 이러한 시도는 당시 한국유학계가 동도서기론의 단계에서 벗어나 東道와 西道 간의 융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모색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철학사상이나 예술작품과 같은 창조적 성과는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와서 높이 평가 받는 경우가 있다. 당시의 약육강



식의 절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인재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적었지만, 국가나 사회의 정신문화적 진로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된 지금에 와서는 그의 업적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李寅梓, 『省窩集』.

李震相, 『寒洲集』.

郭鍾錫, 『俛宇集』.

張志淵, 『韋庵文稿』.

金光鎮, 『海岳文集』.

고령군·경북대퇴계연구소, 『고령문화사대계1(역사편)』, 2008.

김종석,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과 지역별 특징」, 『국학연구』 제4집, 2004.

\_\_\_\_\_, 「한주학과 유교종교화론의 본질과 공자교운동」, 『철학논총』 제46권, 2006.

박종홍, 『박종홍전집』, 민음사, 1988.

신일철, 「신채호의 자강론」, 『한국사상총서』Ⅲ, 경인문화사, 1973.

전동현, 「대한제국시기 중국 양계초를 통한 근대적 민권개념의 수용」, 『중국근현대사 연구』 제21권, 중국근현대사학회, 2004.

Abstract

Reformation Theory of Confucianism in Early 20 centuries

by Li Yin Jae

Kim, Jong-Seok

Li Yin Jae was born and lived in Koryeong. He is famous for having done a profound studies of Greece Philosophy for the first time among Confucian scholars in Korea. Critical Study on Ancient Greece Philosophy is a his most important work. But he was a faithful confucian scholar at the same time. This study gives attention to the problem of how we can explain these two another sides in relation. After all, he reaffirmed the truthfulness of Confucianism through studies on Greece philosophy, and extracted the ground to accept the western cultures through studies on Neo-Confucianism of Hanju school. And on that basis, he insisted to reform the conservative Confucianism of that time in Korea.

Key Word

Li yinjae, Confucianism reformation, Critical Study on Ancient Greece Philosophy, Hanju school, Li jinsang, Kwak jongseok, Kang yuwei, Ryang chichao

▪ 논문투고일 : 2008.6.5. 심사시작일 : 2008.6.13. 심사완료일 : 2008.6.20.